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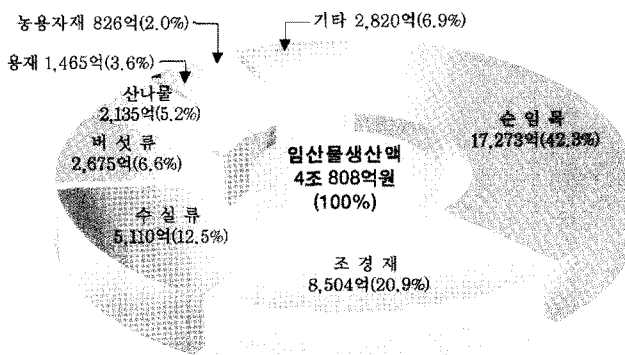
박형순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자원육성부)

조경수 생산현황과 전망

1. 조경수 생산현황 및 이용

현재 조경산업은 매년 급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국내에 예정된 대규모 조정사업 등 여러 여건으로 볼 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2008년도 국내 조경수 생산량은 52,789천본이며, 생산액은 7,886억원으로 임산물 총생산액 4조 808억원의 20.9%를 차지하고 있다(산림청, 2009). 특히, 관목류 조경수의 생산량은 약 3,344만본으로 조경수 총생산량 약 5,279만본의 63.4% 정도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목류 조경수는 단기 임업소득원으로서의 임업이나 조정적인 면에서 중요성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조경산업에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임산물 생산액 전체에서 조경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21% 차지한다.



2008년 임산물통계 자료 (산림청)

우리나라에서 조경에 대한 관심은 1990년대부터 경제발전과 국민소득이 향상되면서 높아지기 시작하였다. 조경(造景, Landscape Architecture)이란 경관을 아름답게 꾸미는 일 또는 정원·뜰·마당·공원 및 기타 녹색지역으로 계획된 실외공간을 개발하거나 장식용 나무를 심는 것을 말한다(방광자, 1993; Carpenter, 1975). 조경수(造景

樹)는 조경에 사용되는 수목을 총칭한다. 넓은 의미에서 조경수는 조경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목본류와 초본류를 합쳐 통칭하며, 좁은 의미에서는 조경용에 이용되는 목본류만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조경수 묘목재배단지로는 전북, 전남, 충남지역에서 대량 생산되고 있으며 각 지역마다 조경수 작목 반을 운영하여 지역에 맞는 조경수에 관한 브랜드로 단기소득원으로 단지화 하려는 움직임이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급변하는 조경수 수요시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수종 개발이나 대형 공사에 공급될 수 있는 특정 수종의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은 현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진달래, 생강나무, 산수국, 개쉬땅나무 등과 같은 일부 관목들은 산에서 불법채취 되는 경우도 다수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근래 조경수 생산 및 유통 현장에서는 신도시 조성, 대형 공원 등과 같은 정부주도의 대규모 건설공사가 이루어지면서 이에 필요한 조경수의 수요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조경수의 품귀현상이 발생되고 있으며 가격 또한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까지 관목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하기 때문에 자생수종으로 아름다운 수종이 많이 있어 봄, 여름, 가을에 꽃, 열매, 단풍 향이 있는 수종으로 개발 할 수 있는 수종이 많다.

2. 조경수 유통 현황

- 최근 5년간 조경시장에 판매된 조경수 생산량과 생산액을 조사한 결과, 2008년 조경수 생산량은 52,789천본, 생산액은 7,886억원으로, 2004년에 비하여 생산량은 27.3%, 생산액은 18.2% 증가하였다. 이중 2008년 관목류 조경수의 생산량은 약 3,344만본으로 조경수 총생산량 약 5,279만본의 63.4% 정도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반면에 관목류 생산액은 약 1,104억원으로 조경수 총생산액의 14.0%를 차지하고 있다.

- 2008년 조경수 수종별 생산현황을 조사한 결과, 교목류 보다 관목류 생산이 월등이 많았다. 전체 생산량 중 관목류 63.4%, 교목류 36.6%로 조사되었다. 2008년 관목류 수종별 생산량은 철쭉류가 약 1,664만본으로 가장 많이 생산되어 전체 비율의 31.5%를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회양목 12.5%, 영산홍류 9.1% 순이었다.

- 최근 3년간 관목류 조경수종 생산추이를 조사한 결과, 철쭉류는 2006년에 비하여 2008년 생산량은 급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쥐똥나무, 회양목, 영산홍류, 무궁화류의 생산량은 안정적으로 나타났다.

- 지역별로 조경수 생산현황을 조사한 결과, 생산량이 가장 많은 지역은 전라북도이며, 생산량은 약 1,950만본으로 전국 생산량의 36.9%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다음으로는 충청남도, 경기도, 전라남도 순이었다. 전국적으로 관목류 생산량이 많은 지역은 전라북도의 완주군이다.

3. 문제점

조경수 생산에 있어 가장 큰 문제점은 향후 수요와 유통을 고려한 생산계획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가에서 현재의 조경수 생산현황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전국적인 통계자료를 구축·분석하여야 한다. 그리고 노동력 부족으로 노지 위주의 교목, 관목류 생산을 컨테이너 재배기술로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년중 식재 및 생산체계를 바꿀 필요가 있다. 또한 향후 대형 조경공사에 필요한 대상수종별 중장기 조경수 수급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또한 관목류를 비롯하여 난대수종인 상록성 수종도 다양화 되어야 할 것이다.

조경수 유통분야에 있어 가장 큰 문제점은 재배묘목 또는 생산된 조경수를 유통시켜줄 전문적인 유통 컨설팅 전문업체 또는 유통센터가 없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서 조경수 생산단지에서 전문경영인이 운영할 수 있는 전문유통센터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를 통하여 정보부족으로 인한 특정수종 과잉생산 방지, 생산자의 적정이윤 보장, 일부 수종의 품귀현상 등을 미리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4. 전망

또한 도시개발의 확대로 고립 단절된 도시내외의 산림을 연결하여 생태계의 건강성 유지 증진 및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에 기여하고 도시의 아름다움을 위하여 정원수, 가로수를 조성하여 사계절 볼거리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특히 가로수는 그 대상수종이 단순하고 정형화 되어있기 때문에 최근의 가로수 식재는 한정된 공간에서도 자연을 느낄 수 있도록 사계절 볼거리를 만들어 교목형 가로수 하단, 중앙분리대에 다양한 관목으로 수형, 꽃, 열매, 단풍, 덩굴류의 식재를 통한 복층형 가로수로 유도되어야 한다.

향후에도 4대강 정비사업, 기업·혁신도시, 2012년 대구세계육상대회, 2014년 인천아시아게임 등 대규모로 조경수의 수요가 예상된다.

또한 농림식품부에서는 화훼, 조경(관목류)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2020년 까지 많은 예산을 지원 할 것으로 본다. 이러한 상황에서, 급변하는 조경수 수요시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수종 개발이나 대형 공사에 공급될 수 있는 특정 수종의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아직까지 조경공사에 사용하는 관목류는 다양하지는 않지만, 앞으로 수형, 꽃, 열매, 단풍색 등이 특색이 있는 수종으로 좀작살나무, 진달래, 털팽나무, 병꽃나무, 까마귀밥여름나무, 신수국, 화살나무, 남천 등이며 향이 나는 미선나무, 정향나무 등이 있다. 특히 관목류는 수형을 눈높이에 맞춰 개발되어야 한다. 🌳



화살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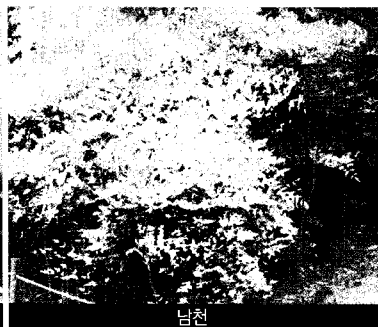
진달래



털팽나무



정향나무



남천



미선나무